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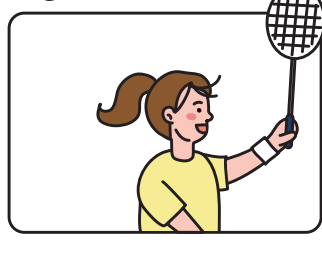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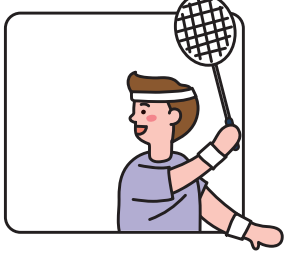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더 알아보기




걱정말고!





보호받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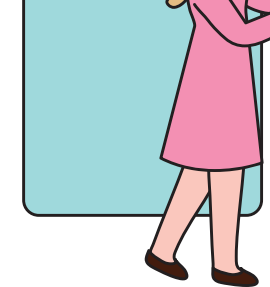
**당신이 사회를
지킬 때,
법은 당신을
지킵니다.**



신고하고!



비밀은 보장 신변은 보호 용기는 보상



인터넷 신고	방문·우편 신고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 1398

- 10 꿈이 영그는 현장
AI로 노는 디지털 세대, 새싹을 피우다
- 15 2023 달라지는 교육제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국가 기초학력보장 전면 시행
- 32 교육웹툰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요
- 46 진로직업인
클라우드펀딩 전문가. 한송이 대표
"삶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직업이죠"



COVER STORY

겨울방학을 맞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진행된 디지털새싹캠프. 1월 17일 가천대에서 열린 ‘아두이노로 식물 키워봐요’ 시간에 스마트팜 아두이노 키트를 조작 중인 보라중학교 2학년 윤필영 학생(가운데)과 친구들.

발행일 2023년 2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편집인 대변인 김천홍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신광수
사무관 이인숙, 주무관 배선연
편집장 이순이
기 자 한주희, (객원)김혜진, 이경화, 정성경, 김수연, 정미화
사 진 김경수
디자인 김자영
마케팅 류광민
편집부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IT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촌
웹 진 www.happyedu.moe.go.kr
제 보 eduzine21@gmail.com
전 화 02-2271-0992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기획

2023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개혁, 우리나라 재도약의 시작’

20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22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24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26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02 네 꿈을 펼쳐라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창업동아리 리셋(Re set)
“기능성 블록으로 폐기물 제로(ZERO) 실현해요”

06 에듀피플

중앙교육연수원 홍민식 원장
“‘배움누리터’로 교원연수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10 꿈이 영그는 현장

시로 노는 디지털 세대, 새싹을 피우다

15 2023 달라지는 교육제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국가 기초학력보장 전면 시행

28 정책을 말하다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위하여

32 교육웹툰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요

34 교육자치시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회 거점으로 한 ‘세종마을학교’
소통과 협력의 교육체계 확립

37 이달의 교육뉴스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외

39 명예기자 리포트

문해력 신장, 방학이 가장 좋을 때! 외

42 교육포커스

AI, 빅데이터 시대 에듀테크의 희망과 과제

46 진로직업인

클라우드펀딩 전문가. 오마이컴퍼니 한송이 대표
“삶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한 직업이죠”

50 체험! 진로현장

금융, 체험으로 재미있게 배워요!

52 일상의 쉼표

조선 왕릉에서 오랜 사연을 듣다.경기도 화성 용릉과 건릉

56 교실혁명 ①

야나두 브릭 할 수 있어!

60 교실혁명 ②

배우는 것이 이렇게 쉽다고? 수업 준비는 지식샘터로!

64 독자마당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 창업동아리 리셋(Re set)



“기능성 블록으로 폐기물 제로(Zero) 실현해요”



최근 5년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건설 관련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제주도의 건설폐기물 증가 추세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한림공업고등학교(교장 오창섭) 토목과 학생들이 실습 폐기물 재활용(업사이클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배경이다. 이들은 폐기물 재활용 창업동아리 ‘리셋(Re set)’을 결성해 ‘2022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아직도 함께 응원해 주던 토목과 친구들의 합성이 깃가에 맘을 돈다는 리셋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사진_ 편집실

전공과목 특색 살린 창업 아이템

리셋의 대표를 맡은 토목과 고효범(2학년) 학생은 한림공고가 제주도교육청 창업 생태계 거점학교가 되면서 창업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고효범 학생은 “창업아카데미에서 배운 대로 주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며 “콘크리트 반죽을 제조하는 실습 후 버려지는 콘크리트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이고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을 해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했다. 김윤도(토목과) 교사는 “실습 폐기물 업사이클링이라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다.”라며 자율 동아리 결성 이유를 밝혔다. 리셋은 창업동아리답게 부원들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각각 대표, 재무팀장, 마케팅팀장 직함을 가지고 직무를 나눴다. 마케팅팀장을 맡은 박이레(2학년) 학생은 “리셋이라는 이름에는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재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했다. 재무팀장인 강원준(2학년) 학생은 “대표가 창업아카데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함께 믿고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에서 진행해 온 창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는 한림공고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 외에도 새로운 길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발판이 되었다. 동아리 부원들은 매달 ‘제주지역 청소년 창업아카데미’에 참여해 창업가 정신 멘토 특강,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 사업계획서 작성, 연설 교육,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창업 세계’에 눈뜨기 시작했다.



- 1 실습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기능성 블록을 만들고 있는 제주 한림고 창업동아리 리셋 학생들과 김윤도 교사(맨 오른쪽 뒤)
- 2 2022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리셋 멤버들

실패 경험도 소중한 자산

제주지역 대회에서 수상하고 나서는 전국대회 준비로 더욱 바빠졌다.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한 동아리들은 현장에서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기 때문에 사업 주제뿐 아니라 시제품도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이다. 대표이자 기술업무총괄을 맡은 고효범 학생은 현장에 전시할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도 내에서는 실물 크기로 제작할 수 있는 3D프린터가 없었다.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김 교사는 “12월 대회를 앞두고 촉박한 시간 탓에 우리 학교 전자과 송효성 선생님의 도움으로 실물의 1/3 크기로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무척 아쉬워했다. 김 교사는 “지금보다 학생들과 멘토 연결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학생들이 마음껏 실패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제주도 내 창업 인프라 확대를 당부했다.

리셋의 창업 아이템인 기능성 콘크리트 블록은 토목과뿐 아니라 건축과에서 나오는 폐목재와 전자과에서 배출되는 폐전선을 재활용해서 만든다. 거푸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폐기물이 발생하는 그 자리에서 제작할 수 있다. 속이 비어 있는 레고 블록 형태이기 때문에 가볍고, 내부에는 기능성 블록을 끼워 넣을 수 있다. 상부 돌기와 측면 돌기 덕분에 수직과 수평 방향의 하중을 지탱해 변형을 줄였다. 이 같은 돌기 디자인은 블록을 쌓을 때 접착 모르타르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열 기능을 하는 톱밥 블록은 폐목재를 활용해서 제작한다. 폐전선은 녹여서 와이어매시(Wire Mesh) 형태로 가공해 콘크리트 블록에 안에 넣어서 강도를 높였다. 그 밖에도 기존의 속빈 콘크리트 블록(390*190*150mm)에 맞춰 설계해 다른 건설 재료와 호환성도 고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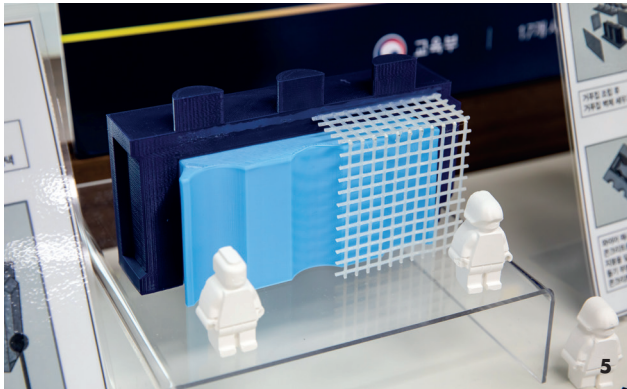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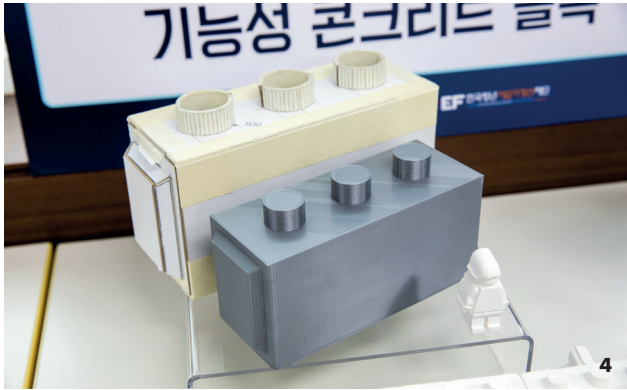
리셋은 지난해 ‘폐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콘크리트 블록’으로 특허출원을 마쳤다. 앞으로 사회적 기업 출



3 리셋 멤버들은 특허출원 이후에도 기능성 블록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개선할 점을 찾고 있다.

4 진로교실에는 리셋이 보드지로 제작해 본 모형과 3D프린터로 출력한 실물의 1/3 크기 미니여저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5 리셋은 와이어매시, 톱밥블록, 콘크리트블록이 합쳐지는 블록 내부 모습을 보여주는 모형도 제작했다.



범도 염두에 두고 있다. 창업 생태계 거점학교를 총괄하고 있는 백정미 교육지원부 부장교사는 “제주도 탐나라공화국 강우현 대표가 한림공고와 업무협약을 약속하며 탐나라공화국 안에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리셋은 정규 동아리로 편성될 계획이다. 전국기능대회가 없는 토목과 학생들은 제주도를 떠나 세종특별시로 다 함께 참관하러 갔던 경험을 잊지 못했다. 함께 했던 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김 교사는 “프로젝트를 끝까지 해내는 경험 속에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정말 뿌듯했다. 앞으로 후배들에게도 이번 노하우를 잘 전달해서 동아리가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격려했다.

경험에서 배우며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리셋. 올해에도 전국대회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타고 있는 부원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

Mini Talk



장원준 2학년 학생

함께 했던 친구들이 모두 믿음직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주 창업아카데미를 갔는데 교육부터 체험까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마지막에는 판교에도 다녀왔고, 시상식 때문에 갔던 세종시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친구들과 합숙도 했다. 폭설 때문에 하루 더 목게 되면서 영화도 보고 같이 놀게 되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던 수학여행을 다녀온 느낌이었다. 같은 반 친구들이 ‘토목과의 승리’라며 시상식 때 응원해 줘서 고맙았다.

처음 3명으로 리셋을 시작했을 때는 일이 너무 많아서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팀원들과 같이하면 뭐라도 될 것 같았다. 또 선생님들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셔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주셨다. 이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하는 것만 남았다.



고효범 2학년 학생

토목과에서 콘크리트를 사용한 실습을 하고 나면 상당량이 학교 뒤편에 버려진다. 버려지는 콘크리트를 활용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던 중 창업동아리를 만들게 되었다. 팀을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끝까지 프로젝트를 함께할 수 있는 성실함을 갖추는 것이었다. 이레와 원준이가 흔쾌히 함께해 주어서 아이디어를 창업아이템으로 구체화할 수 있었다. 후반작업을 도와준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고등학교 시절을 목적 없이 보내고 싶지 않아서 토목과에 지원했다.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따라가기만 해도 길이 보인다. 지금은 제주도 지방직 공무원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 중이다. 사랑하는 제주를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박이레 2학년 학생

처음 아버지와 학교 탐방을 왔을 때 학교 명예의 전당에 사진을 걸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목표를 이뤘다. 토목과의 특성을 살린 아이템을 가지고 수상하게 되어서 굉장히 뿌듯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기능성 콘크리트 블록을 3D프린터로 출력해 실물을 보게 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리셋 멤버들과 토목과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세종시에 가서 직접 수상했던 순간도 기억에 남는다. 폭설로 비행기가 결항하여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물게 되면서 그동안의 고단함을 날려 버리고 올 수 있었던 것도 추억으로 남았다. 3학년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돈독하게 지내면서 각자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늘 곁에서 도움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중앙교육연수원
홍민식 원장

“‘배움누리터’로 교원연수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1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원의 역량
강화는 필수과제다.

이에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
교원연수의 3대 핵심과제를 ‘교실혁명,
책임교육, 디지털 역량’으로 각각
선정했다. 2022년 1월 부임 이후, 정부의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 성적표를 일궈낸
홍민식 원장을 만나 그 비결도 들을 수
있었다.

글·사진 _ 편집실

“우리 원의 비전이 바로 ‘교육의 미래, 변화의 시작’입니다. 연수의 변화
가 교육 현장의 변화를 불러오고, 그 변화로 교육의 밝은 미래를 함께
펼쳐간다는 의미지요. 특히 올해는 ‘교실혁명, 책임교육, 디지털 역량’
을 교원연수의 3대 핵심 키워드로 선정, 2년 차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들어서다 보면, 본관인
‘배움관’ 우측 벽면으로 ‘교육의 미래, 변화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이 한
눈에 들어온다. 지난 1월 19일, 홍민식 원장은 이 문구를 소개하는 것으
로 이번 인터뷰의 모두(冒頭)를 열었다. 1990년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
에 입문한 홍 원장은 교육부 대학지원관·대학학술정책관 등을 역임한
후 2022년 1월 이곳에 부임했다.

올해 중점 추진되는 교원연수 3가지 핵심 키워드 중 먼저, ‘교실혁명’ 과
제를 위해서는 ‘미래사회와 교육의 대전환’ 과정 등이 시리즈 형태로 계
속해서 운영되며, ‘수업혁신 이해’ 과정도 새로 개설될 예정이다. 또 교
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보장 등 국가 교육책임제를 실현하
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의 디지털 리더
십 관련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각급 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게 된다.

4년 연속 교육훈련기관 ‘최우수’ 달성

중앙교육연수원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종합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 4년 연
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2020년에는 ‘창의관’ 등이 코로나19 생활
치료센터로 운영되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 홍 원장은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연수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과 연
수생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 현장의 목소
리를 십분 반영하는, 기본에 충실한 운영방침
이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로 이어졌다.”라
면서 “연이은 수상 소식에 타 부처 교육 훈련
기관에서도 벤치마킹차 방문하는 사례도 늘
고 있다.”라고 전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특히
2020년 말, 에듀테크를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발 빠르게 연수 방향을 전환하면서
코로나 대유행 시기,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



2

“
교육 HRD 생태계 주요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미래형 HRD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는 데 한몫했다.
“우리 원은 올해도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적응
과 진화의 HRD’, ‘자기주도적 학습과 몰입에 기반
한 성장지원’이라는 교육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교
원·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미래 연수
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의 직급별 필수
역량을 고려한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체계
화는 물론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교육 HRD
생태계 주요 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미래형
HRD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은 올해부터 ‘배움누리터’라는 새
로운 교육연수 플랫폼을 운영한다. 2011년부터 운
영돼 온 기존 ‘통합교육연수시스템’이 점차 노후화
되자 연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한 것이다. 이로써 교육환경의 변화 및 최근
인재개발 동향을 반영한 미래형 연수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

올해, 새 플랫폼 안정화·최적화에 만전
“새 플랫폼이 기존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빅데이터
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학습자 맞춤 환경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연수에 참여한 선생님들의 학습경

험과 기록을 저장하여 공직생애주기별 학습경험
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공지능이 개개인
의 학습을 분석, 정형 또는 비정형 학습 콘텐츠를
다양하게 추천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 분야를 더
욱 확장할 수 있게 합니다.”
다양한 교수방법 지원 및 교수학습 도구의 제공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참여형 혼합연수, 마이크
러닝 등 교육연수 유형의 다양화도 특징이다. 무엇
보다 배움누리터의 도드라진 강점은 사용자의 편
의성 증대. 홍 원장은 “연수에 참여하는 선생님들
이 전문적학습공동체나 자율학습공동체 등처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소셜러닝을 통해 상호
학습 교류가 가능해진 것도 특히 강점”이라고 소
개했다. 더불어 학습자 유형을 파악하고 맞춤형 강
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한 교수진의 활용 편의성,
또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연수 관리업무가 가능하
도록 설계된 것도 ‘배움누리터’의 편리해진 기능
중 하나다.
“2023년은 우리 원이 새 플랫폼 운영의 안정화 및
최적화를 수행해야 하는 첫해입니다. 이를 위해 내
외부 콘텐츠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플랫폼
활용의 활성화를 모색할 다양한 정책 추진을 계획
중이에요. 예를 들면, 배움누리터 플랫폼을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연수모델을 새로 개발하
고, 플랫폼의 세부 구성과 기능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배움누리터’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중장기 사업
은 2018년 10월, 정책연구를 기점으로 시작했다.
2019년에는 시도연수원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
하고, 이듬해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였다.
2021년부터 시작된 개발 기간 중 일정의 2/3 이상
개발팀 회의의 연속. 그런데 개발팀에서도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곤 하였다. 중요한



3 올해 새로운 교육연수 플랫폼을 선보인 홍민식 원장

시기에 팀원 이탈이 발생하는 등 이런저런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 지난해 12월, 플랫폼을 개통하기
전까지 시범 운영을 하는 동안에도 1,600여 개의
수정 및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면서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 왔다.
“교육연수의 중추이자 허브 역할 충실할 것”
“‘배움누리터’는 시도교육연수원 등 34개 공동활
용기관과 그 소속기관을 포함하면, 총 66개 기관
에서 활용하는 교육연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공동활용기관 간에는 플랫폼에 등록된 원
격교육 콘텐츠를 비롯하여 기타 연수 운영에 필요
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학습자 연수 이력 등을 효
율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홍 원장은 앞으로 이들 공동활용기관과 콘텐츠를
공동개발 및 활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중복 개발

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또 시도교육연수원과 지
속적인 교류 강화로 교육연수의 혁신과 굳건한 협
업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교육연수 플랫폼 개발을 2018년부터 차
근차근 준비해 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의 비대면
원격교육 환경을 우리 원부터 선제적이고 능동적
으로 대응해 온 셈입니다. 우리 원이 교직원연수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찾
을 수 있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
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홍민식 원장은 본지 독자인 전국의 교육
가족에게도 “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플랫
폼 역할에 충실하면서, 교육으로 모두의 가슴에 희
망을 싹틔우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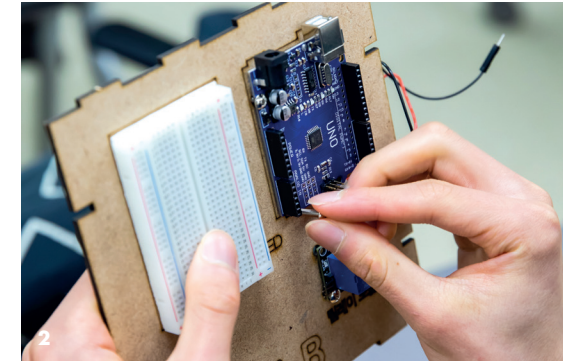
AI로 노는 디지털 세대, 새싹을 피우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디지털 소양을 키우기 위해 올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캠프’ 현장을 찾았다.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아이들에게 SW·AI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글·사진 _ 편집실



1



- 1 아두이노와 센서 모듈을 활용해 스마트팜을 만든 학생들
- 2 스마트팜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캠프 수업
- 3 엔트리를 활용해 자동 자동차에 직접 코딩을 적용해 보는 시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정말 정말 재밌어요!”

지난 1월 17일, 가천대학교 AI관 511호에 학생들 웃음소리와 함성이 울려 퍼졌다. 디지털새싹캠프 ‘엔트리 자동 자동차 코딩’ 프로그램에 참여한 15명의 초등학생 목소리였다. 학생마다 1대의 노트북과 햄스터봇 키트로 엔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해 자신만의 자동차를 만들었다. 엔트리는 네이버 커넥트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교육 플랫폼이다.

캠프에 참여한 서울천일초등학교 5학년 김요한 학생은 “그동안 프로그램만 만들다가 키보드로 직접 햄스터봇을 조종해보니 신나고 재밌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래한빛초등학교 6학년 박시준 학생도 “다음에 또 오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 참여 학생들은 이틀간 자동 자동차의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알아보고 나만의 자동 자동차를 구상하여, 햄스터봇 교구로 직접 설계했다. 엔트리를 활용해 자동 자동차에 직접 코딩을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아두이노로 식물 키우니 디지털 역량 쑥쑥

같은 시간 305호에서는 중학생들이 ‘아두이노로 식물 키워봐요’가 진행 중이었다. 아두이노란 사용하기 쉬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전자 플랫폼이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아두이노를 활용해 식물을 키우는데 소프트웨어(SW)와 인공지능(AI)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SW와 AI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식물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해하고 아두이노와 다양한 센서 모듈을 활용하여 식물이 성장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팜을 만들었다.

복잡해 보이는 스마트팜 아두이노 키트를 조작하는 학생들의 손짓이 제법 전문가스러웠다. 보라중학교

“

약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실습 등을 제공했다.

”

- 46 식물 생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배우고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팜을 키트로 만들어보는 아이들
- 5 햄스터봇 교구로 직접 니만의 자동 자동차를 설계해 구동해 보는 아이들
- 7 초등학생들이 만든 햄스터봇 자동 자동차



2학년 윤필영 학생은 “동영상으로만 보던 것을 직접 해보니 재밌다. 아두이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더 쉽게 이해되고 유익해서 친구들에게도 이 캠프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문민정 씨는 “아이가 평소 코딩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됐다.”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캠프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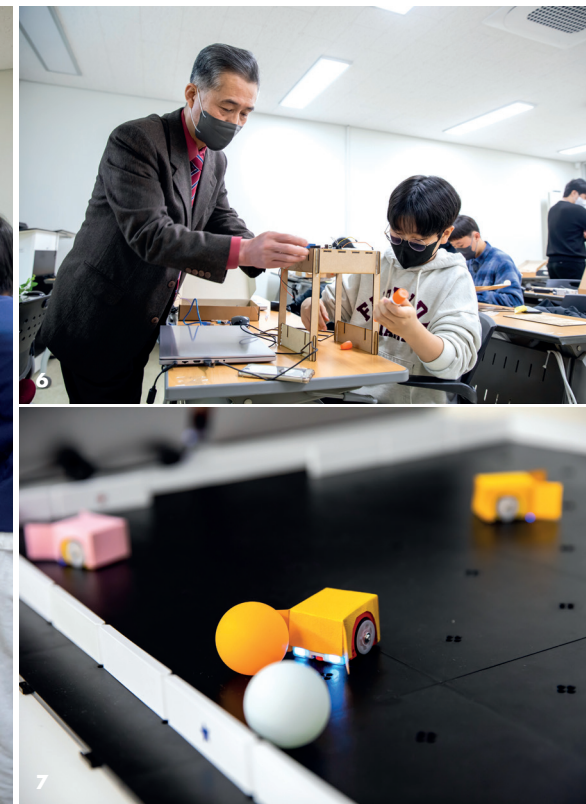
가천대에서 디지털새싹캠프를 진행 중인 가천리버럴 아츠칼리지 송근실 교수는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의 AI나 SW에 대한 이해도 수준이 굉장히 높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다.”라며 “이런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해소되고, 좀 더 나은 캠프를 위해 교구재의 원활한 공급이나 진행 교사들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장, 디지털새싹캠프

디지털새싹캠프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SW와 AI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체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단위로 처음 실시되는 방학 중 교육 사업이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대학 59개, 기업 16개, 총 75개 운영기관을 선정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한 캠프 운영 내용과 규모에 따라 5~40억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한다.

캠프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부터 2023년 2월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각 운영기관은 12월 19일부터 수시로 학생들을 모집해 학년, 디지털 역량 수준과 흥미, 원하는 일정·시간·장소에 따라 캠프를 열었다. 또한 교원 및 교사연구회, 대학, 민간 등의 역량을 모아



디지털새싹캠프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2월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인터넷 포털에 “디지털새싹” 검색 또는 주소창에 “디지털새싹.com” 입력 후, “캠프 신청 바로가기” 클릭
- **문의처** 통합 콜센터 (070-5088-4002/4172)
운영시간: 10:00~17:00
및 각 캠프 운영기관

학교로 찾아가는 캠프(방문형), 특정 장소에 모여 진행하는 캠프(집합형), 온오프라인 병행 캠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약 10만 명의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기초·심화교육, 프로젝트 기반 공동학습, 코딩실습 등을 제공했다.

특히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설했으며 캠프 운영 대학들은 정보교육을 필수로 받지 못한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대학생 캠프와 연계해 대학에서 필요한 SW·AI 기초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자, 다문화 배경 학생, 도서·벽지학교 학생 등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캠프도 운영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

“시대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위한 경험의 자리”

디지털새싹

이번 캠프를 주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와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 1967년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 함양에 앞장서 왔다. 2008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확대 개편한 후 창의인재육성과 과학교육, 수학교육, STEAM교육 및 SW·AI교육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디지털소양확산TF 이혜경 팀장에게 ‘디지털 새싹캠프’에 대해 물었다.

Q 디지털새싹캠프를 열게 된 배경은?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은 산업뿐 아니라, 살아가고, 학습하고, 일하는 등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런 변화는 급가속 되었다. 이런 문명사적 전환기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이 꼭 필요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어’, ‘수리’와 함께 3대 기초소양으로 ‘디지털 소양’을 꼽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더불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디지털 역량 함양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수업 시수를 현행 대비 2배 확대했다. 그러나 개인 관심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들의 ‘디지털 학습 경험’에 대한 격차가 존재하고, 학교 현장에서 정보교육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2025년까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 첫 단추로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방학 동안 부담 없이 쉽고 재밌게 SW와 AI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디지털새싹캠프’를 기획하게 되었다.

Q 이번 캠프에 주안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기업, 대학 등 전문성 있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계’를 구축한 점이다. SW·AI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격히 증가한 데 반해, 현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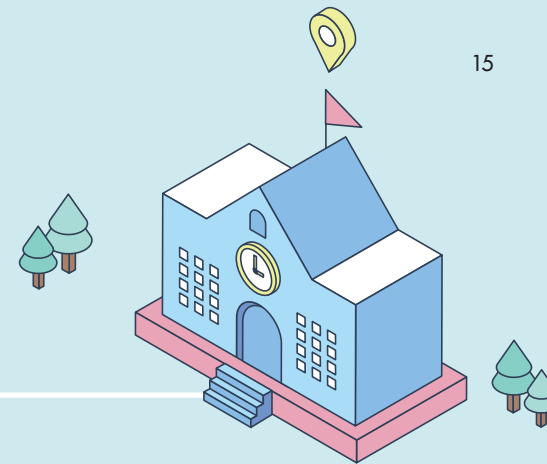
서 이를 가르칠 전문인력은 같은 속도로 늘어나지 못했다. 사회적 자원과 역량의 결집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디지털새싹캠프에는 네이버, 구름 등 전문성이 검증된 기업들과 SW교육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온 ‘SW중심대학’ 등 90개의 운영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획일화된 교육이 아니라, 수준과 유형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캠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Q 이번 캠프에 대한 기대감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전망은?

학생들이 이번 캠프 참여를 계기로, SW·AI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생겼으면 한다. 캠프 한 번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디지털 소양과 컴퓨팅 사고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캠프 참여를 계기로 디지털 학습에 대한 거부감과 장벽이 낮아지길 기대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방학뿐 아니라, 학기 중으로 디지털 새싹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초등 놀봄 학교’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의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이번 캠프를 통해 SW와 AI에 대한 관심이 생긴 학생들이, 학기 중에 열리는 심화형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진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끊임이 없는 학습 경로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 숙제이다. 핵심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씨앗을 뿌리는 일이 디지털새싹캠프라고 생각한다. ⑤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국가 기초학력보장 전면 시행



1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

사학연금, 퇴직유족급여 제한 심사

앞으로는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유족에게는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2023년부터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 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이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 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준용하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된다.

2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전면 시행

2023년부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이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체계적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협력수업, 에듀테크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형을 통해 즉각적으로 보정지도를 해야 한다. 대상자에게는 교육복지·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제공하며,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170개소), 외부 전문기관(의료·상담 등)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4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며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하여 총 5년까지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5

장애대학(원)생 지원체계 강화

2023년 4월 19일부터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체계가 강화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 인고등교육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며,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이 의무화된다.

7

교육급여 카드 포인트 지급으로 개편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의 급여형태를 교육급여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계좌이체에서 수급권자가 기존에 보유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개정내용은 2023년 3월 1일 이후,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6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절차 간소화

2023년부터 초·중학교 입학생의 감염병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학부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하여 교육행정시스템에 입력(학생 입학 후 90일 내)해왔으나, 이제는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8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의 범위에 각종학교가 포함된다. 지금까지 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나 각종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각종학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학교도 학교 경비 운용 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 각종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9

원격대학도 박사학위·전공심화과정 운영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임에도 일반대학과는 달리 석사과정만 운영할 수 있는 특수대학원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을 제외)’까지 확대되어 박사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성인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11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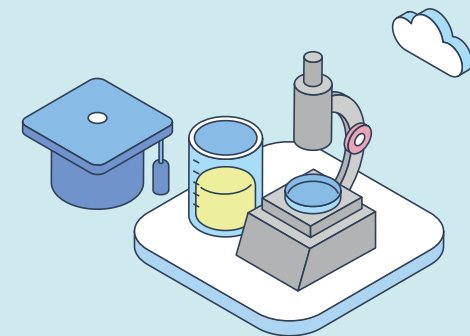
대학교는 올해부터 학부 신입생에게 입학금을 걷을 수 없게 됐다. 입학금의 산출 근거와 용도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 입학금은 2017 개정 「고등교육법」에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이 신설된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돼왔고, 올해 전면 폐지된다.



10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대출 지원

그동안 대학생·대학원생만 이용할 수 있었던 학자금대출을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지원하는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 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은 2023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12

국립대병원,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 가능

2023년 3월 28일부터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됐다. 개정 법률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 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졌다. ②

2023 교육부 업무보고

‘교육개혁,
우리나라 재도약의 시작’

교육부는 지난 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국정과제 점검회의 (2022.12.15)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석열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우리나라 성장을 위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우리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2023년부터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4대 개혁 분야, 10대 핵심 정책

1

학생
맞춤

- ①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도입 추진
- ② 교실 수업 획기적 전환, 학교 자율성 확대 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③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2

가정
맞춤

- ④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 보육 통합 본격 준비
- ⑤ 늘봄학교 도입 → 5개 시도교육청 시범 운영

3

지역
맞춤

- ⑥ 과감한 규제혁신 및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 보장
- ⑦ 5개 내외 지자체와 라이즈(RISE) 시범 추진 및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역과 함께 글로벌(Glocal) 대학 육성
- ⑧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4

산업·사회
맞춤

- ⑨ 국가 차원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체제 본격 운영
- 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
-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등 핵심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 순차 발표

입법

- ⑩ 교육개혁 입법화 추진
- 「지방교육자치법」, 「공직선거법」 개정(러닝메이트제 도입)
- 교육자유특구 근거 법령 마련,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맞춤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개별 맞춤형 교육

2023년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수립

고교교육력
제고방안 마련



2026년까지

디지털교과서
플랫폼 도입 확산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 확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본인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디지털을 기반으로 교육혁신을 모색한다. 기존 서책형교과서를 바탕으로 AI 기반의 디지털교과서를 도입, 학습데이터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해 2월까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수립해 '25년부터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을 학교 현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현장에서 도출된 애로사항을 디지털 신기술(AI, VR, AR 등)을 활용해 해결하도록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경기, 광주, 대구 3개소로 시작된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를 향후 확대하고, 올 상반기 중에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마련한다.

학교 교육력 제고

교육혁신의 출발은 교실 수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육부는 학교 교육력을 더욱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프로젝트·토론형 수업, AI·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 수업 방식의 혁신과 이와 연계된 평가를 실시하는 '교실수업 혁신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교사가 수업·평가 방식의 혁신을 이해하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부터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에 다양한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일반고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의 국립고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 간의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등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교육부는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고교학점제 보완방안'도 상반기에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높여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사 혁신 지원체계 마련

또한,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한 주체로서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양성, 연수, 여건 개선 등 교사 혁신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미래역량 함양과 교육 현장의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을 위해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23.4.)을 현장 교원, 전문가와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수업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올 상반기부터 교육청 및 에듀테크 기업 등과 협업하여 생애주기별·맞춤형으로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추진한다.

그 밖에도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 교원단체들과 함께 학교 업무경감과 교원 인사제도 개선 시안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교육혁신 지원,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모델을 마련하고 3월 중 중장기 교원수립계획도 수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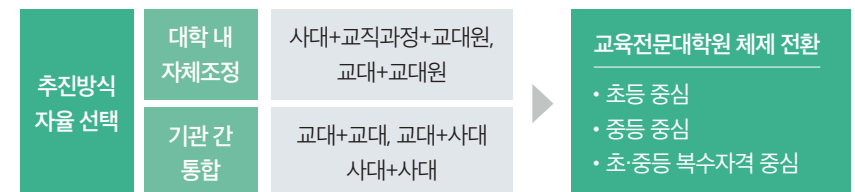
미래에 필요한 필수 역량 함양

교육부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자유학기제, 방과 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방과 후, 자유학기제 연계 SW·AI 캠프인 '디지털 새싹'을 통해 '22년 10만 명이 디지털 교육을 받았으며, '23년에는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교육소외지역 초교를 중심으로 디지털튜터도 확대 배치한다. 지난해 디지털 튜터가 배치된 곳은 34개교였으나, 올해에는 340개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개별 학습 지원, 다중지원 팀 운영 내실화 등 안전망도 강화한다. ②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방향(안)

- (수여학위 및 자격) 전문석사학위(M.Ed) 또는 전문박사학위(Ed.D) / 정교사 1급
- (운영) 양성규모 적정화·양성교육 전문화 목표만 제시하고, 운영 자율성 보장



가정맞춤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2023년에는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4개 교육청
늘봄학교 시범 운영



2026년까지

유보통합 단계적 완성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보통합 추진

교육부는 아이들이 어떤 가정, 어떤 소득수준, 어떤 여건의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질 높은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고 밝혔다. 1월 중 교육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양 기관의 중앙·지방 관리체계를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상반기에 발표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로드맵	1단계('23~'24) : 격차 해소, 기반 마련	2단계('25~) : 통합 본격 시행
학부모	단계적 교육·돌봄 부담 완화	교육비 부담 대폭 경감
교사	처우 개선, 자격·양성 체제 개선방안 마련	개편된 자격·양성과정 적용
시설	안전한 환경 조성	시설 기준 개선안 적용
조직	교육 중심의 중앙·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일원화된 관리체계로 지원
재정	재원(유평회계·국고·지방비) 통합	통합된 재원으로 운용
법령	관련 법률 일괄 제·개정('24)	제·개정 법률 시행

늘봄학교 추진

또한, 새 학기가 시작하는 '23년 3월부터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교생들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원하는 시간에 희망하는 양질의 방과 후 교육을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이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맞벌이 학부모 등의 자녀돌봄을 위한 돌봄교실과 정규수업 외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예술, 체육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돌봄 유형도 오전 7시부터 시작

하는 아침돌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저녁돌봄, 그리고 방과 후 수업 사이 쉬는 시간을 활용한 틈새돌봄 등을 제공한다. 올해에는 5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돌봄교실을 더 늘리기 어려운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공간에 여유가 있는 학교, 시설 등을 활용한 거점형 돌봄기관을 운영한다. 올해부터 오는 '27년까지 매년 5개소씩 총 2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및 교원의 업무경감을 모색한다.

소외계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부는 교육급여를 현실화해 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지속 지원하여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초·중·고 대상의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를 전년 대비 평균 23.3% 대폭 인상하고, 교육활동에 소비하도록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 지급으로 개편('23.3월)한다. 또 국가장학금과 시중 대비 저금

리(1.7%)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취업후상환), 학점은행제 학습자(일반상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지원 대상을 '22년 3.9만명에서 '23년에는 6만 명으로 약 1.5배 확대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지역별 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2년 32개에서 '23년에는 53개로 확대한다. 복지, 학업, 정서, 다문화·특수교육 및 안전(학교폭력, 성폭력, 학대 등)에 있어 사전예방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전주기 통합 서비스로 재구조화('23.3월~)한다.

안전한 학교 구현 지원

또한, 교육부는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추진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를 예측·분석하고 판단·해결하는 위기대응능력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도 1개소 이상 안전체험관을 확충('23~'26, 6개소 신규 구축)하고 전문인력 등을 지원한다. 교육시설 안전 인증을 확대하여 안전 취약 요소를 선제적 발굴·개선한다. ㉠

늘봄학교를 통해 달라지는 점

	7~9시	9~13시(14시, 15시)	13시(14시, 15시)~17시	17~20시
	늘봄학교(Educare)	정규수업(Education)	늘봄학교(Educare)	
1~2학년	[아침돌봄] • 학생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	[교과·창체 수업]	오후 돌봄 + 맞춤형 프로그램	
3~4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저녁돌봄] • 희망 학생 대상 • 식·간식 제공 • 저녁 프로그램 제공
5~6학년			방과후1 틈새돌봄 방과후2	

지역맞춤

규제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

2023년에는

5개 지자체
RISE 시범 운영
정원·학사·재정
규제 제거



2026년까지

지역의 대학 지원
권한 대폭 확대
중앙정부의
대학규제 제로화

과감한 규제혁신·권한 이양 및 대학 구조개혁

교육부는 규제혁신과 권한 이양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에 대한 정원, 학사, 재정 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평가를 폐지하는 등 과감히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총정원 내 학과 신설, 정원 조정을 완전히 자율화하고 신규 캠퍼스를 설치하거나 대학 통합 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대학규제 제로화를 추진한다.

사립대학의 재산처분을 유연화하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집행 시 각종 규제를 없애 재정 운영의 자율성도 보장한다.

경영위기대학	경영부실대학	한계대학
대학 간 통·폐합, 학내 구조조정 등 경영자문 제공·이행 관리	재산처분, 사업양도, 통·폐합 시 특례를 통해 회생 기회를 부여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사회복지법인 전환 등 퇴로 마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사업 (25억 원) 신설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연내 제정 추진	

그동안 교육부가 해 왔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폐지 승인 등에 대한 권한도 연내 지자체에 이양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도 올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해 법령 정비 등을 거쳐 ’24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방향

- 특구 내 대안학교의 설립 절차 개선,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교육의 공공성 확보 등
- 지역 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 특례 등 교육청·지자체 중심의 창의적인 교육자유 특구 기획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또한,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여, 지역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을 확대하고,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며,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올해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여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맞춤 규제혁신과 지역 주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지역과 동반 성장하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컬(Glocal) 대학을 육성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교육부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2월 내 수립할 예정이다. 늘봄학교(교육부),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등 부내·외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향

- (재원) 특별교부금 등을 활용하여 지자체·교육청에 재정지원 추가
- (규제개선) 교육부·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간소화, 「학교복합시설법」 개정사항 발굴
- (추진체계) 교육부가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 협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지역 중심 재정지원 확대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도입(’23.1월)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대학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역 인재 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립대학(37개교) 육성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 사립대학이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교육을 혁신하고 특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을 신설한다. 또, 올해 대학 창업교육이 혁신 인재의 실전 창업까지 연결되도록 창업교육 혁신 공유대학 대상 권역을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②



산업·사회맞춤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신속히 대응하는 교육

2023년에는

첨단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 수립

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



2026년까지

100만 디지털 인재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구축

핵심 첨단 분야 인재 육성

교육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기술·산업·고용 분야의 범부처 전문성을 결집하여 반도체, 디지털, 바이오 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등의 첨단 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고 국제 난제 해결을 이끌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기술 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범부처 논의의 장으로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2월 중 출범하는 한편, 핵심 분야별 인재 양성 방안을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재 양성 전략회의 개요

- (구성) 대통령(의장), 정부위원 및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 구성
- (목적 및 기능) 첨단 분야 인재 양성 전략,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 양성 정책 방향, 기타 인재 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 양성 정책 심의·조정

교육부는 미래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반이 되는 ‘기초학문 분야’의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균형 있는 인문사회·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에 ’22년 1,883억 원에서 ’23년에는 531억 원이 증액된 2,414억 원을 지원하며,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에 ’22년 5,190억 원에서 ’23년에는 100억 원 늘어난 5,290억 원을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첨단 분야 인재 양성

특히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경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10년간 반도체 관련 인재 15만 명을 양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도체 시장 급성장에 대한 충분한 규모의 인력을 길러내고, 학위과정 이외 반도체 인력 양성 경로를 마련하여 정책 시책을 줄이는 한편, 교육·연구환경도 개선하여 양질의 고급인력 육성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치로 교육부는 올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 8곳을 지정하여 대학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해 첨단 분야 단기 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올해 신설하여 10개 대학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의 반도체 연구·교육·실습을 담당하는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도 4개소 지정하여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을 ’22년 8개에서 ’23년에는 13개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적기에 육성할 수 있도록 부처 협업형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또한, 교육부는 고숙련 실무인재를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직업계고의 신산업·신기술 분야(반도체, 디지털 등)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실무인재를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이스터고 2.0을 추진한다. 직업계고 학생에게 기업의 채용 연계형 직무 교육과정 및 취업 컨설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직무역량 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그 밖에도 전문대학이 지역 내 30대 이상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5개의 직업전환교육기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범 운영한다. 지역의 전략 및 선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 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및 신산업 분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마이스터대도 확대한다.

교육개혁 입법 추진

끝으로, 교육부는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과제들을 국회와 협력을 통해 법제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이 지역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국회와 적극 논의하고, 교육자유특구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하여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충분히 보장하고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②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위하여

글_ 남윤철 교육부 사무관

이제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생애 초기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까지 잘 마치고 나면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것이라는 사회적 믿음이 여전히 강하다. 작년 ‘글로벌 인재포럼’에 연사로 나선 마이클 펄은 이를 두고 ‘한국의 정부·학부모·학생은 12~20세까지 엄청난 교육투자를 하지만, 사회에 진출한 26세부터는 교육투자를 멈춘다’라고 했다.

그러나, ‘평생학습 시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함께 우리의 곁에 성큼 다가왔다. 디지털 대전환, 인공지능(AI)의 발달 등 기술혁신에 따라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학습’이 계속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미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 발표한 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5년 이내에(2025년까지) 전 세계 모든 근로자의 50%가 재교육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학습’을 미래의 핵심역량으로 손꼽기도 한 바 있다. 그렇다. 생애 초기에 ‘교육을 마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전 사회가 ‘삶과 학습이 하나’라는 생각을 시작할 때이다.

「평생학습 진흥방안」 수립: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2023~2027년)

2022년 12월 28일, 교육부는 「평생학습 진흥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5년의 평생학습 정책의 기틀이 되는 ‘기본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대전환, 초고령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대비한 ‘평생학습 대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삼았다.

‘평생학습 대전환’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평생학습 시간 등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그간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권리로 전환한다. 다음으로, 정부가 주도하던 공급자 중심의 정책 방식을 정책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으로 전환한다. 또한, 지금까지 그간 전통적 교육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졌던 평생학습을 앞으로는 AI, 디지털 등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한다<그림1 참조>.

생애 초기에 ‘교육을 마친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전 사회가 ‘삶과 학습이 하나’라는 생각을 시작할 때이다.

교육부는 이번 방안의 비전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로 세우고, 관계부처와 함께 앞으로 5년간 6대 핵심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그림2 참조>.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3050 생애도약기를 특별히 지원하며 사각지대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학습경험 간 연계를 강화하며 AI 기술을 평생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 제5차 평생학습 진흥방안: 평생학습 대전환

	지금까지	앞으로
국민	일부의 시혜적 복지	전 국민의 실질적 권리
정책	정부 주도 공급자 중심	국민 관점의 수요자 중심
학습	전통적 교육 중심	AI, 디지털 기반 맞춤형 학습

대학의 역할을 전 국민 재교육·향상교육의 상시플랫폼으로

디지털 대전환 등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대학에서 양질의 재교육과 향상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가 많으나, 아직 대학의 교육환경은 학령기를 주 대상으로 하는 학위과정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학이 재직자 등의 재교육·향상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성인도 대학에서 개설되는 다양한 비학위과정(예: 1~3개월의 단기과정 등)을 수강하고 이를 누적하여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 예) A씨는 00대학에서 운영하는 일반성인 대상 마이크로디그리(비학위과정)를 취득하고 이를 계속 누적하다가 대학 3학년으로 편입

그림 2 - 제5차 평생학습 진흥방안 비전과 6대 핵심과제

비전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

6대 핵심과제

① 대학을 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

② 지자체 중심의 평생학습 진흥

③ 3050 생애도약기 평생학습 지원

④ 사각지대 지원 확대·강화

⑤ 재직경력, 자격, 학력 간 연계 강화

⑥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지원

지자체-대학-기업이 함께
진행하는 지역의 평생학습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산업, 지역주민 등의 학습수요를 발굴하고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에게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국가 사업방식도 그간 중앙정부가 직접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원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자체가 구성한 지자체-대학-기업 협력체계(컨소시엄 등)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처럼 지자체 스스로 지자체별 특성(산업특성, 인구지형, 학습인프라 여건 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국가 균형발전, 지역소멸 방지 등에 평생학습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3050 생애도약기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평생학습을
위한 휴가·휴직제 도입 추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를 나이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43.7세이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중위연령이 54.6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30~50대는 청년과 중년 대부분이 속해 있어, 계속교육, 이·전직 교육 등이 가장 활발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표 참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30~50대 국민을 생애도약기로 지정하고 학습상담(컨설팅), 학습시간, 학습비용, 학습콘텐츠 등을 종합적이고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지자체·민간 등과의 협업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평생학습을 국민의 실질적 권리로 보장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평생학습 휴가 및 휴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평생학습 불참요인(%): 1위.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40.3%)(한국교육개발원, 2021년)

표 - 인구수 및 총인구대비 비중('22. 9월 기준)

총인구	0~29세	30~59세	60~89세	90세~
5,147만 명	1,477만 명	2,335만 명	1,306만 명	28만 명
100%	28.7%	45.4%	25.4%	0.5%

사회부총리가 총괄·조정하는
국가-지자체-민간 평생학습
협력체계 구축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신설,
사각지대 지원 강화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은 학력보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 그 영역이 넓고 다양하여 각 부처, 지자체, 기업 등 민간에서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평생학습 정책을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총괄하고 조정하여 정책의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올해부터 우리나라 평생학습 정책의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평생학습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AI 기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진단·상담(컨설팅)·경력관리·학습추천 등을 지원하고 평생학습 데이터를 민간과 연계하여 기업 채용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직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도’를 신설하고,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등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 학습경험인정제

예) 고교졸업 직후 관광가이드로 근무한 A씨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대학 2학년 학력을 인정받고, OO대학 관광학과에 편입학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인 조문이 헌법 제31조 제5항이다. 이는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일이 헌법정신이자 국가의 중요한 의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평생학습 진흥방안」도 헌법정신에 따라 마련한 5개년 기본계획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의 발판이 교육이었듯이 미래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의 원동력도 교육이 될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교육은 학생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연령대 모든 국민이 누리는 권리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앞으로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국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언제든 계속 도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❷



초등 입학 이렇게 준비해요

글_편집실 그림_이정화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에게 가장 큰 기다림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지요.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길러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용변 보고 등교하기 등 생활습관을 길러주세요~

초등 1학년에게는 40분 동안 한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제자리에 앉는 연습과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학교생활은 사회생활의 시작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주세요~

자기 의사를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크고 똑똑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훈련을 해주세요.

그리고 싫을 때는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 자녀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과 부모 연락처 등도 확실하게 가르쳐 줍니다.

시간표 챙기기, 준비물 갖추기 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에 건강체크를 해주세요. 농친 예방접종이 있다면 접종하고, 알레르기 질환이나 시력·치과 검진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우리 초등학교에서 만나요~

구분	내용
사회적 행동	-친구와 협력적으로 모둠활동하기 -감정과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자기 관리	-화장실에 가고 싶을 때 스스로 가거나 교사에게 도움 요청하기 -자기 물건 챙기기 -용모 단정히 하기
의사 소통	-가족 이름, 주소, 전화번호 표현하기 -교사나 친구가 발표할 때 주의해서 듣기 -자기 이름 쓰기

구분	내용
작업 수행	-멈추라는 지시에 활동 멈추기 -과제가 주어졌을 때 혼자서 끝까지 활동하기 -작업에 대한 교사의 설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활동하기
규칙 지키기	-수업시간에 자리에 앉기 -다른 친구의 활동 방해하지 않기 -자기가 활동한 자리 정리하기 -교사의 주의를 얻고자 할 때 적절한 행동하기 (손들기 등)

출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자녀교육 가이드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사회 거점으로 한 ‘세종마을학교’ 소통과 협력의 교육체계 확립

세종시는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체의 성장을 꾀하고, 학생들이 지역사회 생태계 안에서 삶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2016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마을학교를 운영해 왔다.

글 _ 편집실 사진 제공 _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마을, 삶의 배움터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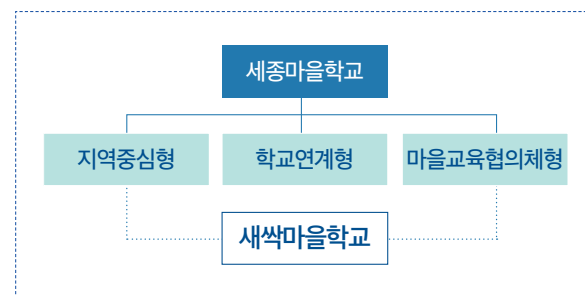
세종마을학교는 지역의 비영리단체·비영리사업자가 배움과 삶이 일치하는 교육을 목표로 마을 속에서 돌봄·진로·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그 내용과 특징에 따라 지역중심형, 학교연계형, 마을교육협의체형으로 나뉜다. 지역중심형은 자체적으로 확보한 공간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생태놀이 마을학교라든지 각 지역 아파트 마을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학교

연계형은 방과후학교나 자유학년제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진행하며 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다. 마을교육협의체형은 학교와 주민센터,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소통하여 학교와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마을학교에 신규로 진입하는 단체를 지원하는 새싹마을학교가 있는데, 마을교육 공동체 자문단으로부터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세종시에는 총 30개의 마을학교가 선정·운영되고 있다.

표1 - 세종마을학교 유형



공감예술학교



생태놀이 숲누리

교육청 밀착지원으로 높은 교육수준 유지

매년 1월에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마을학교 추진계획 공고가 나고 접수가 시작되는데 2월에 자체 서류와 대면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이후에 보조금이 교부되고 차년 2월까지 마을학교가 운영된다. 차년 3월엔 실적과 정산보고서 제출, 마을학교 운영평가가 이루어진다.

세종마을학교에 선정되면 유형별 규모 및 여건에 따라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차등 지급되며 1~2년 차 마을학교에는 마을교육 공동체 자문단의 전문적 상담과 함께 회계처리 지침, 마을교육 공동체 철학 등 다양한 연수도 함께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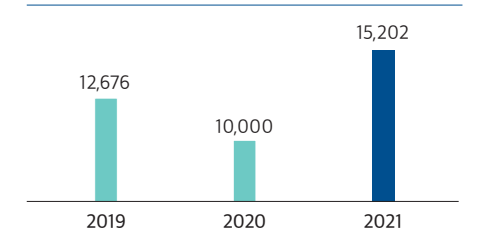
표2 - 세종마을학교 예산 및 수업 기준

유형	신청 예산	수업 기준	비고
지역중심형, 학교연계형	700만 원 미만	20회 또는 60시간 이상	1~2년차 마을학교는 자문단 모니터링과 컨설팅 반드시 실시
	700만 원~800만 원	30회 또는 80시간 이상	
마을교육협의체형	800만 원 미만	20회 또는 60시간 이상	자문단 모니터링과 컨설팅 반드시 실시
	800만 원~1천만 원	30회 또는 80시간 이상	
새싹마을학교	350만 원~400만 원	15회 또는 40시간 이상	자문단 모니터링과 컨설팅 반드시 실시

80%에 달하는 높은 만족도

세종마을학교는 배움과 나눔의 교육공동체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 배움터를 활성화하며 소통과 협력의 교육 협력체계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학생 참여 현황이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표3 - 참여 학생 수



세종마을학교 중 협의체형마을학교의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전의마을학교’를 소개한다.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 ‘꿈이 자라는 전의마을학교’

2018년,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은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이 필요하다는 지역사회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종시청과 협의하여 전의초등학교 앞 공·폐가를 매입하고 건축을 진행했다. 그 후 같은 뜻을 가진 지역주민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고 ‘꿈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린이마을학교’의 시작이다. 지역주민이 앞장서

‘꿈센터’ 주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마을주민의 협조와 배려로 교내 외 교육활동에 적합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후 ‘꿈센터’는 커뮤니티교육장, 공연장, 공연연습실, 휴식 공간 등을 두루 갖추며 명실상부한 청소년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의초등학교와 세종시청,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의 노력이 만나 현재의 ‘꿈이 자라는 전의마을학교’가 탄생한 것이다.

‘꿈이 자라는 전의마을학교’는 한정된 학교 교실을 벗어나 어린이와 청소년에 최적화된 복합체험·놀이 공간에서 맘껏 뛰놀며 체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마을학교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는 마을교사를 비롯해 지역사회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교과와 연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학교·지역사회·공공기관이 협력하는 교육협의체 모델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현재 초등학생 대상으로 로컬요리, 생태관찰, 천연염색, 분청사기, 나는 기자, 역사탐방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학년별 1~2개 반을 운영하며 각 반 6~30명 총 480여 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다.

또한, 중학생 대상으로는 로컬요리, 생태관찰, 천연염색, 분청사기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년별 1~3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23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고 있다.

‘꿈이 자라는 전의마을학교’에서 일하는 마을교사들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꿈센터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기 용이한 점, 그리고 마을 중심 행사 및 축제에 학교가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학생들은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아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아요.”라는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앞으로 학부모와 시민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 속 배움터를 확대하기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마을교사 양성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도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전입교사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마을교육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❷



어울더울책놀이



조치원-세종전통시장 탐방

EDUCATION NEWS

vol.487
FEBRUARY

NEWS 01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추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원의 피해비용 보상과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게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 작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강화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도 확대한다.

NEWS 02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 입법 개정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2월 13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설립 후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해서는 4대 요건(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 본재산)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일부 학과의 새로운 캠퍼스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학 간 자발적인 통폐합 촉진을 위해 통폐합 시 일률적인 정원 감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주·야간 정원 전환 및 캠퍼스 간 정원 이동 시 교사 확보 요건도 완화한다. 대학이 전문대학원 신설 시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박사과정 신설 시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대학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도 담겨 있다.

NEWS 03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 도입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과 기업 간 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제'는 대학생 현장실습, 산학협력 교육과정 운영,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활동을 통해 실적 점수(마일리지)를 적립한 기관 중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에는 여신금리 인하, 각종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금융 혜택과 함께 정부부처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인증효력은 선정일로부터 2년간 유지된다.

산학협력 우수기관은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운영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최종 선정 결과는 3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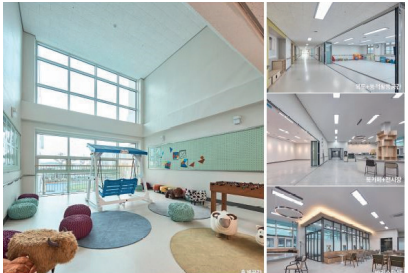


NEWS 04 대구예아람학교 '최우수 교육시설'로 선정

대구예아람학교 특수학교(중축)가 2022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에서 최우수 교육시설로 선정됐다.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신축, 리모델링 부분으로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교육부는 주최하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창의적으로 조성하고, 공간구성·디자인 등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에 신축,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했으며, 심사 결과 총 3개 교육시설을 각각 최우수, 우수 교육시설로 선정했다.

최우수작인 대구예아람학교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 조성, 부산명지꿈자람유치원은 내·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연계, 서울경희여고 본관동은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간 조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NEWS 05 다문화 학생, 강점을 살려 진로를 찾다!

교육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해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 '다문화 직업인편' 총 20편을 개발·보급한다.

'직업탐구 별일입니다' 시즌3은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직업인의 고유한 경험과 강점 사례를 중심으로 개발된, 편당 15분 내외의 진로교육 콘텐츠로서, 1월 23부터 매주 월·화 2회씩, 10주간 진로교육 온라인 누리집 커리어넷과 유튜브 채널 교육부TV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시즌3에서는 다문화 고등학생 3명, 다문화 대학생 5명, 다문화 직업인 13명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웠던 점과 극복 사례 그리고 다문화인의 강점을 활용한 사례를 현장 탐방형 미니 다큐형식으로 공유한다. 1편인 고양시 성저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바수데비 선생님부터 시작해 앞으로 용접사, 변호사, 화가, 간호사, 대학생 등 다양한 다문화 학생과 직업인의 진로탐색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다. 2



FOCUS 01 문해력 신장, 방학이 가장 좋을 때!

글_ 성완 명예기자



영유아기는 문해력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시기이다. 문해력은 소릿값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므로 음운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어 거꾸로 말하기, 젠말 놀이 등과 같은 말놀이 게임으로 음운론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영유아기는 그림책을 소리 내어 읽어 주되 아이와 상호 작용하며 흥미와 상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령기에는 문해력 격차가 곧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더욱 문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읽기 부진은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로 극복할 수 있다. 학생들마다 읽기 격차가 다르므로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전담 교사가 있다면 효과적으로 읽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슬로리딩’, 즉 천천히 읽기는 문해력 향상을 위한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슬로리딩’은 작품을 감상하면서 곱씹기식으로 대충 알고 넘어가지 않는다. 하나의 단어, 한 줄의 문장에 담긴 맥락적 의미를 곱씹고 생각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면서 한 문장이 가지는 단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 감추어져 있는 숨은 뜻을 파악한다. 작품 속 상황과 중심 사건,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를 독자의 배경지식과 연결하

여 관계짓고 추론하며 작품에 대한 정보를 연계성 있게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어느 한 영역의 배움이 완성되면 단순히 그 영역의 배움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배움, 또 다른 배움으로 확장되고 연결된다.

슬로리딩을 실천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다. 첫째, 독자 개인의 수준에 맞는 책, 문체가 매끄럽고 삶의 교훈을 주는 책이 좋다. 너무나 많은 도서가 있으므로 학년에 맞는 권장 도서 중에서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슬로리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첫 단계는 일부분씩 소리내어 읽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후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와 유의어를 찾아 기록하며 읽어나간다. 이후 일정 부분 안에서 찾은 단어 중 하나의 단어를 골라 그 단어를 활용한 문장을 기록하고, 또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 기록해보면 새로운 단어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후 여러 문장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선택하고 이유를 적어보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는 문단별로 소제목을 붙이고, 자신만의 글 전체의 제목을 붙여보도록 한다. 글을 읽다가 생기는 질문은 그때그때 메모하여 질문을 키우고 더 알고보고 싶은 부분은 글 전체의 내용과 상관이 없더라도 잠시 샅샅이 빠져 알아봐도 좋다.

학기 중엔 온종일 수업을 들어야 하고 저녁엔 휴식과 복습, 과제를 하느라 천천히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하다. 학생들에게 비교적 여유로운 겨울방학과 봄방학은, 평소 읽고 싶던 책에 푹 빠져서 천천히 책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음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FOCUS 02 춘천 교동·소양동 마을 카페로 마실오세요~

글_ 하정희 명예기자

2023년 강원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더 높은 학력’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운영 방침으로 ‘카페형’ 독서실을 제시하고 있다.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하여 유효 교실을 정리하고 학교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공간 창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카페’와 ‘학습 공간’의 뜨거운 만남

그러나 얼핏 ‘카페’와 ‘학습 공간’이라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단어의 조합에서 물음표가 생긴다. 통상적으로 카페는 가까운 사람끼리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 위한 목적으로 사적 비용을 들이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과연 카페와 공존하는 미래교육의 모습은 어떠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명쾌한 답을 찾고자 강원도 춘천시 교동·소양동 마을 카페를 방문, ‘연결’을 키워드로 하여 교사와 학부모, 지역민의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다.

2023년 새해를 맞은 1월 평일임에도 지역민의 방문이 많았다. 주로 중년의 여성 지역민이 친구들과 함께 오시거나 노년의 지역민들이 가족과 함께 찾아오셨다. 또한 점심시간에 짬을 내어 찾아오는 직장인들이 많았다. 부모님과 동반하여 온 아이들의 모습도 종종 보였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음료 주문서에 마을 주민임을 표시하여 전달하면 원하는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삼삼오오 모여든 사람들은 바깥 풍경과 실내인테리어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지역민의 얼굴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다양한 메뉴가 있고 어린이를 위한 무카페인 음료도 있었다. 무료 시음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양이 넉넉하고 맛이 좋았다. 특히 우유와 같은 부재료를 아끼지 않았는데 중년의 바리스타는 춘천시의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해주었다. 춘천시 교동과 소양동에 근접해 있는 마을 카페는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며 전망이 좋아 누구

나 호감을 느끼는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 카페와 가까운 곳에는 돌봄커뮤니티센터가 있어서 ‘꽃할매 그림책 교실’, ‘천연생활재 만들기’, ‘웃어라! 봉의산 마을’, ‘비탈마을 즐거운 시니어교실’ 등의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우리동네 마을 카페 어떻게 활용할까?

마을 카페 ‘시음회’가 끝나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한다고 한다. 필자도 교육자로서 카페와 교육의 연결고리를 고민해 보았다. 지역민을 위한 ‘복지 향상을 위한 장소’에 더해 ‘교육하는 장소’로서 ‘마을 카페’에 바라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카페에서 지역민을 위한 무료 혹은 저가의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등을 하는 것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의 교육적 성장을 불러오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지역민 간 연결이 가능해야 한다.

한동네에 살아도 친한 이웃이 아니면 말 한번 트기가 어렵다. 따뜻한 차 한잔하면서 우리 마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을 연결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셋째, 돌봄과 교육의 역할을 기대한다. 사람을 키우는 일에 마을이 나선다면 지역의 인재를 지역을 살리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취재를 위하여 3일간 연속으로 마을 카페를 방문했는데, 비슷한 시간대에 다시 마주치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았다. 그리고 많은 지역민이 카페 방문 외에도 돌봄커뮤니티센터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 공간이 주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고 하였다. 마을 주민을 한곳으로 모이는 힘이 느껴지면서 이러한 공간의 장점을 활용한 교육 사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기사는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열렸던 마을 카페 시음회에 여러 차례 참여하고 운영진과 지역민과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행복한 교육 웹진(www.happyedu.moe.go.kr)에서 보다 다양한 기사를 확인하세요.

시켜 인간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면대면 소그룹교육에서와 유사한 효과를 학습자들에게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이것이 궁극적인 에듀테크의 지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블룸의 논문은 요즘의 AI와 빅데이터로 무장된 인공지능 기반 교수 체제가 이런 것을 가능케 하리라는 주장의 근원이기도 하다.

에듀테크가 약속하고 있는 것들

이 같은 논리에 따르면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에듀테크를 도입하면 자연히 우리의 학생들은 수업의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개인 학습 능력이 극대화될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또한 교육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시키고자 하는 정책 입안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분명히 에듀테크는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촉진하는 점이 있다. 10대의 학생들은 테크놀로지에 쉽게 매혹당한다. 비록 학습에의 집중이 학습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기술에 있다고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이런 기술이 없는 수업에서 보다는 이런 수업 방식에 더 집중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나 학습자 간의 협력을 도와주는 도구들을 사용할 때 학습자들의 협력 역시 증대된다. 이런 장점은 소위 말하는 21세기 기술의 4C(창의력, 협력, 소통, 비판적 사고력) 중에서 협력과 소통을 돕는 방편이 된다. 그뿐만 아니라 에듀테크는 학습자들에게 언제든지 배우고자 하면 학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디지털 교과서나 가정에서도 듣고 볼 수 있는 학습 자료는 이미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적인 과제들

에듀테크는 학습효과를 향상하기 위하여 테크놀로지나 IT 도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다. 예를 들자면 메이커교육을 통한 스팀(STEAM)교육에서는 아두이노를 이용하고 코딩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IT 도구가 활용되지만, 이런 활동이 학습자의 전통적인 교과지식이나 기초학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에 에듀테크를 사용하면 당연히 개인의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듀테크나 AI 기반 개인 교수형 수업체제가 갖추어진다면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구에 의하면 학습능력이 높은 상위 25%와 낮은 25%는 교수자의 교수방법이나 교재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 중간 정도의 능력을 보이는 학생 50%는 교수자가 채택한 교수방법이나 교육자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을 채택한 수업체제는 중간 그룹의 학생들 50%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낮은 25%의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적인 요인보다 오히려 교수자와의 대면수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학습자료나 디지털화로 인한 뛰어난 교수 체제가 갖추어진 교육환경이라 할지라도 학습자들이 자연히 '학습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발전된 에듀테크에 의해서 인간 교사를 배제한 채 교실 수업을 이끄는 AI-주도형 수업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수업체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AI가 학습자의 정서와 삶 자체를 파악하고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 교사의 역할을 필요로 한다. 교육은 결코 점수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에듀테크나 AI 기술을 접목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할 때는 반드시 교사와의 협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후로 이루어질 수 없는 교육과 테크놀로지의 결합 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교사를 배제한 교육체제의 변화시도에 기인한 점이다. 그런 점에서 새로이 시도되는 디지털 교육에서는 교사를 그 중심에 두는 제도적, 정책적 해안이 요구된다. 새로운 정책적 시도에는 그 효과성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번의 결정이 오래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특성상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접목하고자 시도했던 수많은 노력들의 성공과 실패의 요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겸허히 살펴보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등장하고 있는 기술이 영원하지는 않겠지만 인간의 학습 특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
이러한 기술을
채택한 수업체제는
중간 그룹의
학생들 50%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크라우드펀딩 전문가

오마이컴퍼니
한송이 대표



10년여 동안 4천여 건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절체절명의 기업들에 소생의 힘을 부어준 오마이컴퍼니의 한송이 대표.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직업적인 성취감은 물론이고 많은 보람과 기쁨을 느껴왔다는 한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글·사진 _ 편집실

자기 아이디어나 사업성 아이템 등을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투자받을 때 활용되는 크라우드펀딩.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일반화된 것은 2008년경 미국에서 최초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인 인디고고(Indiegogo)가 출범하면서부터다. 우리나라엔 2010년에 크라우드펀딩이 들어와 2011년에 정착됐다. 본래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금 모금이나 재난구호 사업 모금으로 시작되었던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인해 이제는 신규 사업을 위한 투자자 모집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이러한 취지를 기반으로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크라우드펀딩 회사로 성장하게 된 ‘오마이컴퍼니’는 오랜 기간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업성장엔 힘을 실어주는 매개체가 되어 왔다. 여기에는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도입하여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진행해온 한송이 대표의 역할이 크다. 이 분야로 발을 딛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경험하며 사회적 경험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충실히 쌓아온 한 대표. 그녀는 크라우

드펀딩 전문가로 경험을 쌓다 보면 유용한 자질들을 익히게 되어 다른 분야로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앞으로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좀 더 마음을 열고 유연한 태도로 배움을 준비해나갔으면 한다고 한 대표는 말한다.

크라우드펀딩 전문가의 열린 가능성을 전해준 그녀와의 일문일답.

하나,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담당하는가?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모금함을 개설하여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펀딩은 크게 증권형과 후원형, 기부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보통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매니저를 PM이라 지칭한다. 펀딩에 올려진 프로젝트의 내용을 정교한 콘텐츠로 다듬어서 후원하는 분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PM의 주된 역할이다. 펀딩을 올리신 분들에게 저희가 컨설팅해드리면서 결과적으로 모금이 잘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12
4천여 건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성사시킨
한송이 대표와 직원들



둘,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서 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해외에서는 2008년부터 크라우드펀딩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국내시장에 들어온 것은 2010년부터라고 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MD(상품기획자) 분들이 이직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저는 대학 졸업 후 방송작가로 활동하다가 야후코리아, 다음 등 각종 플랫폼이 형성되던 시기 온라인업종으로 전환하여 마케터로 일하게 되면서 웹 서비스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 시기 한창 유행했던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플랫폼에서 마케터로 일하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접하다가 해외에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출신의 학교 선배와 창업하게 됐다.

셋,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 활동했던 그동안의 경험을 소개한다면?

우리는 2012년에 오마이컴퍼니 서비스를 오픈하

여 혁신기업가들, 또는 소상공인들이나 사회적 기업가들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오픈 이후 지금까지 4,000여 건의 크라우드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우리 회사에서 자금조달을 했다. 우리 회사는 기존의 후원형 크라우드펀딩 외에도 2016년부터 대중들이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십시일반 투자를 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렇게 후원형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10년 넘게 진행해왔다.

넷,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서 그동안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해오셨다. 일을 진행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면?

크라우드펀딩은 유형에 따라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 등 누구나 진행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다. 하지만 처음 펀딩을 개설하시는 분들의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완성도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플랫폼을 오픈하

때 심사하는 일정 요건들이 있어, 저희가 직접 업체에 방문하고 대표님을 만나보기도 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오픈시켜드린다.

다섯,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낄 때는?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가 너무 많다. 특히 그동안 인연을 맺었던 회사 창업주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받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좋은 피드백에 동력을 얻어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온 것 같다. 일례로 울산의 한 소기업의 경우, 초기에 300만 원을 목표로 펀딩을 시작했다. 울산 지역의 경력단절 여성들과 시니어를 채용해서 회사를 꾸려가는 조그만 업체였는데, 200명 정도가 모여서 300만 원의 기금을 모으게 되었다. 우리회사를 통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 것이다. 이제는 울산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로 성장을 했고 부산엑스포 유치 기념품 조달을 맡아서 하는 등 다양한 기업들과 연계해서 사업체를 확장하고 있다. 이 기업체의 대표님은 오마이컴퍼니가 은인이라고 늘 말씀하신다. 이뿐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우리 회사를 통해 성장했던 사례가 많아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람과 기쁨을 자주 느낀다.

여섯,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있다면?

우선 대화를 잘 이어갈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대표님들과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을 잘 끌어갈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결국 업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이해도와 상식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플랫폼을 오픈하게 되면 모금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어야 한다.

일곱, 직업인으로서 크라우드펀딩 전문가의 미래 전망은?

크라우드펀딩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며 점점 더 확장되고 있다. 국내 크라우드펀딩도 이에 발맞춰 확장되고 있기에 저는 앞으로의 직업으로 봤을 때 유망하다고 생각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배우고 적용하는 기술을 습득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직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 일하다가 창업을 한 친구들이 주위에 꽤 많은 편이다. ②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를 위한 진로 Tip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없는 사람들이 본인의 프로젝트를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금액을 후원, 투자받는 크라우드펀딩의 중개를 담당하는 금융 투자업자다. 관련학과로는 수학, 경제, 경영, 금융, 통계학과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 국제금융역이나 자산관리사(FP) 자격증을 취득하면 크라우드펀딩 전문가로 활동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다. 후에 투자신탁 운용회사, 자산운용사에서 일하거나 창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금융, 체험으로 재미있게 배워요!

금융을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자본과 증권 시장 전반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체험관에서는 대상별로 수준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 대상 기업가체험 프로그램인 ‘YEEP’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체험해 볼 수 있다.

글 _ 편집실 사진 제공 _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체험관

자본시장 기초부터 심화까지 맞춤형 교육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다면, 자본과 증권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이다. 한국거래소 서울 자본시장역사-체험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수준별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좋다.

먼저, 홍보관에서는 전시 해설을 통해 자본시장의 역사와 한국거래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증권교실(60분)이 상설로 진행된다. 참여형 증권교실은 전시 해설과 더불어 워크북, 보드게임 등을 통해 재미있게 증권과 투자 개념을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일반인 대상 수준별로 마련돼 있어 각자 맞춤형 교육을 신청해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테마증권교실은 초·중·고, 대학생/사회초년생, 학부모 등으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한국거래소 체험 등 현장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방학 기간 등에 참가자를 모집하고,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무료로 진행한다.

한편,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총 4,5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상설/테마 증권교실을 운영해 자본시장의 역사와 한국거래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한국거래소 홍보관(서울)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여의도동)
• 문의 및 예약전화 02-3774-4413, 4488, 4098

한국거래소 박물관(부산) •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 문의 및 예약전화 051-662-2559

※ www.academy.krx.co.kr에서 예약(사전예약 필수)

- 1 하계 초등학교 증권시장교실
- 2 자본시장역사-체험관 체험 (제일고등학교(위),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아래))



온라인 창업체험교육 플랫폼 ‘YEEP’

온라인에서 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체험해요!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인 ‘YEEP(Youth Entrepreneurship Experience Program)’은 창업체험교육 수업을 위한 교안,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생 창업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교육부 지원으로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운영하며, 창업가정신과 창의적 진로 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가상창업체험은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신만의 가상스타트업 홈페이지를 만들고 운영해 보는 ‘Go스타트업’, 동아리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가상마켓’, 투자자를 대상으로 창업 아이템을 홍보해 보는 ‘온라인 사업설명회’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가상크라우드펀딩’은 스타트업이 창업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가상으로 체험하고, 투자자들의 반응과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학생들은 아이템 분석부터 사업설명서 작성까지, 창업 과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모의 체험할 수 있다. 프로젝트가 오픈되면 프로젝트 기간 YEEP의 활동 포인트인 ‘앞’을 기반으로 펀딩이 진행되며, 목표로 한 금액을 모으는 가상체험을 해볼 수 있다.

YEEP은 학생, 교사, 학부모, 창업 및 진로체험 기간 등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②

- 홈페이지 <https://yeep.go.kr>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202 (서초동, 브이알빌딩)



- 1 YEEP 홈페이지 메인 화면
- 2 가상크라우드펀딩 체험 사례
- 3 가상크라우드펀딩 체험 화면

조선 왕릉에서 오랜 사연을 듣다

경기도 화성 용릉과 건릉

용릉과 건릉에 방문한 날, 겨울비가 보슬보슬 내렸다.
을씨년스러울 것이라 예상했던 산책로에 운치가 가득했다. ‘신들의
정원’이라 불리는 왕릉은 신성한 공간이었기에 왕릉 주위에 울창한
숲을 돌려 보호했다. 조선 건국 이래 수많은 국난을 겪었는데도
모든 조선 왕릉과 숲이 온전할 수 있었던 건 명당이어서일까,
왕릉을 지키고자 했던 이들의 노력 덕분일까.

글·사진_ 김혜영 여행작가

화산에 나란히 묻힌 사도세자와 정조

519년을 이어온 조선과 대한제국에는 27명의 왕과 황제가 있었고, 왕릉 42기가 전
해온다. 조선왕조의 역사가 깊은 만큼 왕릉에 얹힌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이중 ‘비운
의 왕세자’ 사도세자(1735~1762)와 ‘개혁신주’ 정조(1752~1800)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 ‘용릉과 건릉’을 찾아갔다. 용릉은 장조(사도세자)와 헌경왕후 홍씨(혜경궁)의
능이고, 건릉은 정조와 효의왕후 김씨의 능이다. 두 능이 화산 중턱의 동쪽과 서쪽
언덕에 마주 보듯 조성돼 있다. 사도세자의 무덤은 원래 서울 동대문에 있었는데, 효
심 깊은 정조가 왕위에 오른 뒤 지금 자리로 옮기고 무덤의 격을 올렸다.



소나무가 우거진 화산 서쪽 언덕에 정조의 능인 건릉이 조성돼 있다.



- 1 창건 초기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용주사 대웅보전
- 2 용건릉역사문화관의 실내 전시물
- 3 용릉(사도세자의 능)으로 이어지는 숲길

정조는 용릉을 조성할 때 많은 공을 들였다. 지관들에게 천하 명당을 찾게 하고, 당대 최고 조각가에게 석물 조각을 맡겼다. 용릉의 병풍석에 새겨진 모란과 연꽃 문양이 화려한 이유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정조는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했다. 죽어서라도 부자간의 정을 나누고 싶었으리라.

건릉은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용릉 동쪽 언덕에 조성되었다. 1821년(순조 21) 효의왕후를 합장하려 할 때 건릉 자리가 풍수상 불길하다고 하여 지금의 서쪽 언덕으로 옮겨졌다.

솔숲 지나 사도세자를 만나러 가는 길

용릉과 건릉 매표소를 통과해 용건릉역사문화관을 지나면 갈림길이 나온다. 용릉은 오른쪽에, 건릉은 왼쪽에 자리했다. 용릉부터 들른다. 용릉으로 이어지는 숲길이 S자로 휘어진다. 길 끝에는 무

엇이 있을까 상상하며 걷는다. 기품 있는 소나무들이 뿜어내는 상쾌한 향기와 봄을 재촉하는 빗소리에 머리가 맑아진다. 상수리나무숲도 지나고, 언덕길, 오솔길을 음미하며 발걸음을 옮긴다.

용릉 입구에 세워진 홍살문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용릉은 여느 조선 왕릉과 달리 홍살문, 정자각, 능침이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았다. 능침이 정자각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다. 정자각에서 용릉을 올려다보며, 사도세자의 기구한 삶을 떠올린다.

사도세자는 2세에 왕세자가 되고, 아버지 영조를 대신해 정사를 돌보기도 했으나, 영조와의 갈등 때문에 정신병이 깊어진다. 결국 영조의 명에 따라 뒤주에 갇힌 지 8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영조는 훗날 자신의 가혹했던 처사를 후회하고, 애도하며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이루지 못한 개혁군주의 꿈

건릉은 용릉 서쪽의 야트막한 능선 너머에 있다. 용릉보다 소박하게 꾸며져 있다. 용릉과 반대로 능침에 설치하는 병풍석이 없고 난간석만 있다. 별이 잘 드는 언덕에 평온하게 잠들었을 정조를 상상해 본다. 정조의 삶은 어땠을까. 11살 때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을 목격하고, 25세에 왕위에 오르기가 지 생명을 위협받는 역경을 겪었다.

즉위 후에는 규장각 설치, 탕평책 추진, 화성 건설 등의 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나 별안간 세상을 떠나면서 꿈이 좌절됐다. 정조의 사망에 논란이 있는데, 당시 치명적인 고질병이었던 종기를 심하게 앓았고, 대업을 이룬 만큼 과도한 스트레스도 원인이었을 것이다. 업적에 가려진 정조의 삶 또한 애잔하다.

용릉과 건릉을 관람하기 전에 용건릉역사문화관을 먼저 둘러보자. 규모가 작지만, 조선 왕릉과 용

릉과 건릉, 사도세자와 정조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

정조의 효심으로 세운 용주사

용건릉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용주사도 필수 코스. 용주사는 정조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고, 용릉을 수호하기 위해 세운 절이다. 용주사 낙성식 날 밤 정조가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하여 용주사라 이름 지었다.

용주사가 소장한 국보 ‘용주사 동종’과 보물 ‘용주사 대웅보전’ 등 총 16점의 문화재도 눈여겨볼 것. 용머리 장식이 돋보이는 대웅보전은 초창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18세기 불교 건축의 특징을 보여준다. 대웅보전 안의 ‘목조삼세불좌상’과 ‘후불탱화’, ‘삼장보살도’도 보물로 지정돼 있다.

용주사 동종은 신라 중 양식을 갖춘 고려 초기 대형 범종이다. 국보로 지정된 동종은 평창 상원사 동종, 경주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천안 성거산 천홍사명 동종(국립중앙박물관 소장)과 더불어 네 개뿐이어서 가치가 높다. 동종 몸체에 새겨진 비천상과 삼존상의 하늘하늘한 날개옷이 손에 잡힐 듯 섬세하다. ②

화성 용릉과 건릉



주소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1
문의 031-222-0142
입장 시간 09:00~18:00(2~5월, 9~10월), 09:00~18:30(6~8월), 09:00~17:30(11~1월). (관람 종료 1시간 전 입장 마감), 월요일 휴관
관람료 1,000원(만 25세 이상~만 65세 이하)
정기 해설 10:30, 14:00



브릭 프로젝트 수업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자신감 높이기

야 나두 브릭 할 수 있어!

글·사진 : 황수연 밀양아리솔학교 교사



‘교실혁명’ 코너에서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다양한 수업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도구를 활용한 교육방법을 소개해도 좋고, 수업 분투기도 환영입니다. 초임 교사 시절의 웃지 못할 ‘망한 수업’ 사례도 좋아요. 교단일기처럼 자유로운 수필 형식도 OK! 2,000자 내외 분량의 글을 eduzine21@gmail.com로 보내주세요.

브릭 프로젝트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말이나 글, 그림만으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생각은 많지만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글로 표현하기 어려워, 그림으로 나타내기 부끄러워서 등 다양한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험을 종종 하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의 표현력을 키워주고자 ‘High-5ive Brick Challenge(하이파이브 브릭 챌린지)’에 도전하였다. 하이파이브 브릭 챌린지는 ATC(초등컴퓨팅교사협회)와 넥슨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로 브릭을 활용한 수업을 지원하여 창의적으로 협력하며 표현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학생으로 성장하게끔 하는 사업이다.

브릭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는 “야 나두 브릭 할 수 있어!”이며, 본교 중학생 1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네모의 꿈 브릭 MV(뮤직비디오)’, ‘살기 좋은 밀양’, ‘친환경 학교’, ‘웃놀이 한마당’ 등의 프로젝트 수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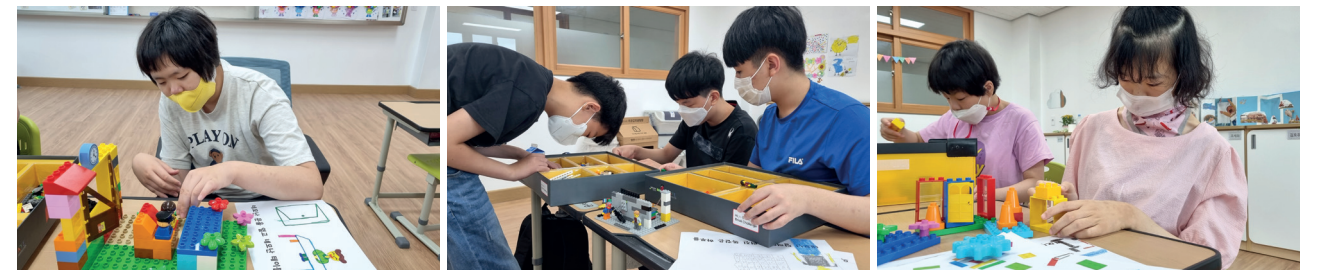


브릭과 함께 찰라!

브릭 프로젝트 수업의 실제

[프로젝트 1] 네모의 꿈 브릭 MV(뮤직비디오)

네모의 꿈 노래 가사 장면에 맞게 브릭을 만들고, 스톱 모션 기법으로 사진을 찍어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가사 장면을 분담하여 각자 자신이 맡은 부분의 콘티 그리기와 브릭 만들기를 하였으며 협동심을 발휘하여 뮤직비디오를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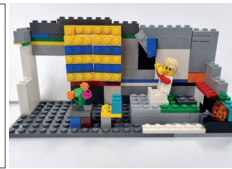


개성 있는 나만의 장면을 표현해보요!

뮤직비디오 콘티 및 브릭 사진 예시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인지 몰라



세상은 동글게 살아야 해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인지 몰라

뮤직비디오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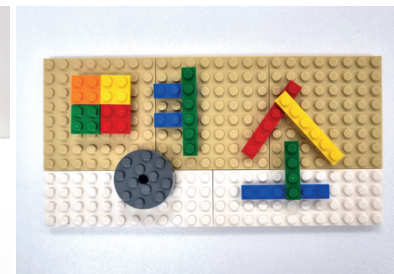


- 제목: 네모의 꿈 브릭 뮤직 비디오 (1분 53초)
- 코드URL: <http://m.site.naver.com/11GKZ>

[프로젝트 2] 살기 좋은 밀양

우리 지역 밀양의 다양한 모습을 브릭으로 표현하고, 북아트로 밀양 홍보책을 만들어서 밀양을 홍보하는 프로젝트이다. 기본교육과정 중학교 사회 교과와 연계한 활동으로 밀양의 자연환경, 대표 명소, 축제, 먹거리 등을 바르게 알고, 우리 지역을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개하였다.

브릭으로 만든 밀양의 모습 예시



명소 (영남루)

북아트 결과물



우리 지역 밀양의 모습을 만들어요!

[프로젝트 3] 친환경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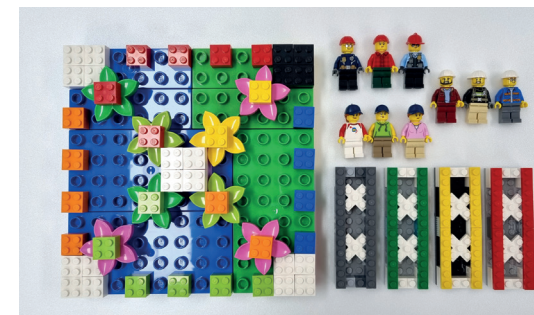
하이파이브 브릭 챌린지에서 주최한 이벤트로 챌린지에 참여한 모든 학교가 브릭으로 친환경 학교를 만든 후에 릴레이 영상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이다. 친환경의 개념을 알고, 브릭으로 친환경 학교를 꾸미며 친환경을 실천하는 마음도 다짐하였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프로젝트 4] 윷놀이 한마당

명절을 맞이하여 브릭으로 윷판과 윷을 만든 후에 강당에 모여 반별 대항 윷놀이를 한 프로젝트이다. 우리나라 명절을 올바르게 알고, 전통 놀이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다.



브릭으로 만든 윷판과 윷



윷놀이 한판 경기 모습

브릭 프로젝트 수업을 마무리하며

‘과연 학생들과 브릭으로 수업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했었던 3월 초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2학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학생들은 각자의 속도대로 모두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늘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학생은 어느새 눈을 반짝이며 “브릭 해요.”라고 말하면서 수업을 기다리고, 소근육이 정교하지 못해 큰 브릭만 쏘를 수 있었던 학생은 어느새 작은 브릭 조각을 끼워 피규어를 만드는 수준까지 발전하였고, 잘난 체하며 혼자만 만들던 학생은 어느새 옆 짝지에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멋진 학생으로 변신했다.

교사인 나도 함께 성장했다. 브릭에 흥미가 없어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멋진 작품을 만들지 못해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교한 작품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 상상을 구체화하는 경험을 해보도록 수업을 하다 보니 처음 목표하였던 학생들의 표현력과 창의력 증진은 물론이고, 나 또한 새로운 수업을 도전하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

새로운 도전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도 늘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 다음에는 또 어떤 도전을 해볼까? 12

배우는 것이 이렇게 쉽다고? 수업 준비는 지식샘터로!

글·사진 | 조기석 부산 양운초등학교 교사
(지식샘터 활동 지원 컨설팅 강좌 참여교사)



12년 전 내 나이 35살. 2011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패드2라는 생소한 기기가 출시되었다. 그 당시 내 월급을 훌쩍 넘는 금액으로 아이패드2를 세 대 샀다.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던 나에게, 이보다 더 혁신적인 교육의 도구는 없다고 느껴졌었다. 그해 7월, 29대의 아이패드를 지원받아 교실 수업에 적용했고, 그 사례가 모여 스마트러닝, 스마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 당시 딸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 전자책(e-Book) 세트를 사줬더니, “아빠! 책은 종이로 읽는 게 더 좋아요.” 이러는 것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전자기기를 잘 다루고 좋아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전자기기는 학습 과정의 필요에 따라 선택되어 사용돼야 하며 그 과정에 교사의 역할은 필수라는 확신을 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 이후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다.

코로나19와 일반화된 에듀테크

12년이 흘러 현재, 2023년이 되었다. ICT 활용교육, 이러닝(e-Learning), 유러닝(u-Learning), 스마트교육(SMART Education), 블렌디드러닝(Blended Learning)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것이 이제는 에듀테크(Edu-Tech)라는 이름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듯 느껴진다. 물론 메타버스(Metaverse) 활용 교육이 현재의 화두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에듀테크의 영역에 포함되며, 메타버스 또한 그 이전의 모든 개념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름이 많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 현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미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교실의 물리적인 정보화 사업으로 전자칠판과 학생용 개인 단말기가 이미 준비되었거나 현재 준비 중인 것이 그것을 증명해준다.

언택트(Untact) 수업, 스마로그(Smalog) 수업. 코로나19로 인해 교실 수업의 개념이 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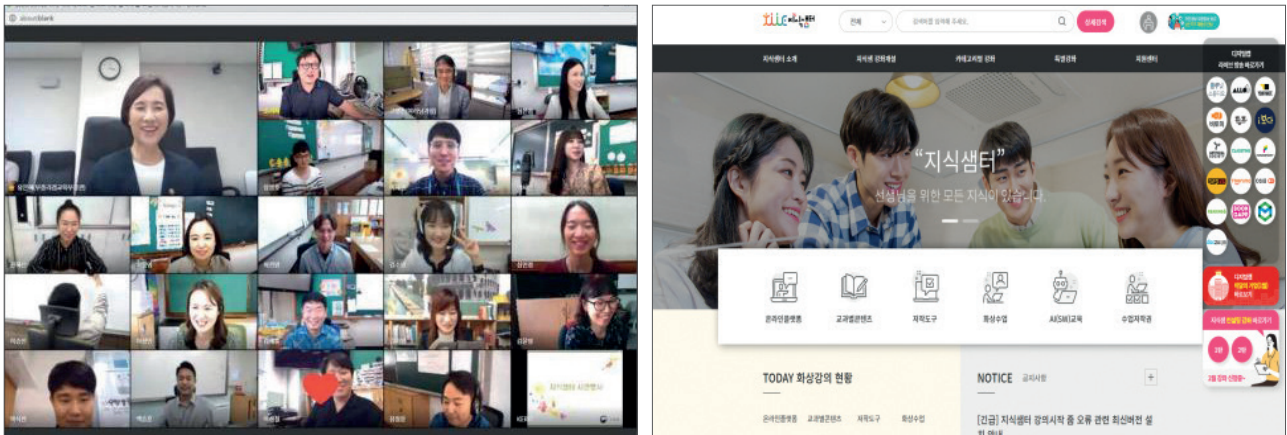
최신 정보를 얻는 방법이었었던 이러닝 박람회

수업과 비대면수업으로 나누어졌고 이를 혼용한 형태의 수업도 일반적인 것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2000년부터 시작된 교육정보화 사업은 일선 교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일부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사회의 변화는 교육정보화를 단 1년이라는 시간 만에 획기적으로 바꾸어버렸다.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다. 모두가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이 그러한 수업의 장점을 자신의 지식, 기술, 요령과 결합하여 전반적인 수업의 질이 상향 평준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듀테크 원격연수, 지식샘터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지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는 일로 바꾸는 것이다.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면, 내재한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결국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교사의 이러한 역량 강화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의 양질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보화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려면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출석 또는 원격연수 콘텐츠가 기록된 공문을 찾아보거나 사설 연수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강좌를 들어야 했다. 핵심만 뽑아 내면 2~3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내용도 보통 15시간 이상의 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원격연수의 경우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습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20년, 지식샘터(<https://educator.edunet.net>) 홈페이지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모두 바꾸어버렸다. 실시간 화상강좌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기 실습이 가능한 에듀테크 원격연수의 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소속 시도교육청의 범위를 벗어나 전국을 무대로, 원하는 강좌를 찾고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2~3시간 정도의 짧은 강좌로 구성된 것이 많아 필요한 정보



지식샘터 활용 모습과 홈페이지

지금의 지식샘터는 말 그대로 지식이 넘쳐흘러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워 담으면 되는 거저먹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에 집중하여 학습이 가능하고 강사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어서 질의응답이 즉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 과거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 외국의 포털사이트를 번역기를 돌려가며 전전긍긍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지식샘터는 말 그대로 지식이 넘쳐흘러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주워 담으면 되는 거저먹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고정된 소수만이 강사로 운영되는 정체된 느낌의 강좌 구성이 아니라 자신 있는 분야에 누구나 자신을 강사(지식샘)로 등록하여 강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교사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고 알리는 좋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모든 과정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단위 학교에서 필요한 연수가 있는 경우 ‘학교단위 강좌’를 신청하여 최신의 정보를 동료 교사와 함께 배울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2023년 수업 전 이것만은 꼭!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이름이라도 알고 2023학년도를 시작했으면 하는 것 몇 가지를 말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가 메타버스 도구다. 화상을 통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줌(ZEP)이나 스팟(SPOT) 등의 플랫폼과 360VR을 활용한 MR(Mixed Reality)이 그것이다. 미래의 사회는 메타버스를 빼고 이해할 수 없다. 사회가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을 논하고 지향하는 현시점에서 교육이 그것을 몰라서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도구를 들 수 있겠다. 티처블머신(Teachable Machine)이나 OpenAI(<https://openai.com>)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새 학년을 시작하면 학생들과 함께 보다 더 재미있는 수업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상호작용 기반의 H5P(HTML5 Package)이다. 학생들은 예쁘게 잘 만들어진 수업자료도 좋아하지만, 선생님이 직접 만든, 학생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수업자료도 좋아한다. 과거에는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프로그램 제작이 현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안 하는 것이다. 언급한 모든 것들은 이미 지식샘터에서 제공되는 강좌이며 짧은 시간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 매달 100건이 넘는 강좌가 오픈되고 있어, 사회의 흐름이나 교육의 동향에 따른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만 하지 말고 일단 지식샘터(<https://educator.edunet.net>)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자. 접속하는 순간 스스로 발전할 가능성은 99%라고 생각한다. 2

독자마당

<행복한 교육>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웹진(<http://happyedu.moe.go.kr>) 의견보내기에 리뷰를 남겨주시면
채택된 분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김동석 님

<특별기획>을 읽고

최근 교육부가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이라는 비전을 담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장애인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차별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만, 현실과는 꽤 괴리가 있어 보이는 장면이나 대사는 시청자를 불편하게 했다. 장애인 특수교육은 이 시대 또 다른 우영우가 사회인으로堂堂하게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육이다. 정부는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을 확대하고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



박옥희 님

<꿈이 영그는 현장>을 읽고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추어 교육 분야도 교과 클라우드로 기반 프로젝트 구축과 AI 기반의 수업 혁신을 추진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창의융합형 인재로 육성해 나가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이런 실험을 부산 동수영중학교에서 시작했고 앞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과 추이를 미리 내다보고 잘 준비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교실을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으로까지 확장하고 교무실을 교무업무지원센터로 바꾸면서 미래형 교실의 터전과 밑거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은 미래 역량을 길러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감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김규연 님

<교실혁명>을 읽고

'이제 학교는 경험의 공간, 온라인 국제교류로 너의 날개를 펼쳐봐!'를 읽고 학교는 단지 지식만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곳으로 변모되고 있음을 엿보게 되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온라인 국제교류' 수업을 보며, 과거 교사 위주의 주입식교육에서 탈피해 이제는 토론식 위주로 학교 수업이 바뀌고 있음을 더 잘 느끼게 됐다. 특히, 교사들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여 도전정신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희망이 되고 학생들의 삶과 배움에 큰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 7

EVENT

2023년 대구, 인천, 광주, 경남에 공립 00000가 신설된다. 00000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00000에서 이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00000 운영 모형을 개발하여 다른 시도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아시는 분은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 접속하거나 위의 QR코드를 스캔하신 후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

2025년부터 전국에서 늘봄학교를 리모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란?

방과 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시범운영

→

2024년
단계적 확산

→

2025년
전국 확대

늘봄학교

AI·코딩도 배울 수 있어요!

미래형 신수요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 AI·SW 등 디지털 교육기회 확대
• 기업, 대학, 전문기관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에듀테크를 활용한 혁신적 교수방법 도입

학생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문화·예술·체육활동 강화
• 소규모·수준별 고품질 강좌 개설

늘봄학교

1학년 학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초1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입학직후(3월 1~3주)
방과후 에듀케어 프로그램 무상 제공

1학년 1학기
놀이·체험 중심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신입생 학부모 대상
방과후·돌봄 정보 제공

늘봄학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돌봄유형 다양화·내실화

아침·저녁돌봄, 방학 돌봄, 거점형 돌봄 등 다양화

방과후 연계 틈새돌봄, 일시돌봄 제공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20시까지 단계적 확대,
석간식 및 프로그램 제공